

분사의 구문론 I

장성민 <<< 한국성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번 호부터는 분사의 구문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헬라어에서 분사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분사의 구문론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분사란 “동사적 형용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형용사들처럼 분사도 성과 수와 격을 가지며, 그것의 꾸밈을 받는 명사들의 성·수·격에 일치하게 된다. 한편 분사는 동사의 성격을 지니므로 ① 시제와 태를 갖고, ② 동사의 다른 활용형들처럼 부사적 꾸밈말을 받으며, ③ 타동사의 분사일 경우 직접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기초 문법서에서 분사를 통상 ‘현재 분사’ (The Present Participles)와 ‘과거 분사’ (The Aorist Participles)로 구별하지만¹⁾ 분사들은 본래 시제의 기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반복적인 동작인지 일회적인 동작인지를 표현하는 ‘행동의 유형’ (Aktionsart)을 의미할 뿐이었

1) 이러한 구별 역시 시간(time)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 시상(aspect)에 따른 구별이다. 근래의 문법학자들은 ‘현재 분사’ (present participle)라는 용어가 주는 ‘시간적인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진행적 분사’ (progressive participle)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J. Gresham, Machen and Dan G. McCartney,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New Jersey: Pearson Education, 2004), 137.

다.²⁾ 따라서 분사들과 주동사 사이의 시간적인 관계는 단지 문맥을 통해서 유추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완료된 동작을 표현하는 분사가 종종 정동사 보다 앞에 위치해서 결과적으로 통상적인 어순이 ‘분사에 의해 표현되는 완료된 동작→정동사의 동작’ 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을 나타낸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 과거 분사와 연결되게 되었다. 즉 “*ταὐτ’ εἰπὼν ἀπῆλθεν*”(그는 이것들을 말한 후 나갔다는) “*ταὐτ’ εἶπε καὶ* (그리고 ‘그 다음에’) *ἀπῆλθεν*”과 같은 의미이다. 하지만 동일한 개념이 어순 상 정동사 다음에 오는 분사에도 적용된다. 마가복음 1장 31절이 이와 같은 경우이다. *ἤγειρεν αὐτὴν κρατήσας τῆς χειρὸς*(그녀의 손을 잡은 후 그녀를 일으켰다). 하지만 과거 분사의 동작이 단순과거로 표현된 정동사의 동작과 일치할 경우 단순과거 분사의 시간적인 요소는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24절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 경우 *προσευξάμενοι εἶπαν*은 ‘그들은 기도한 후에 말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προσεύξαντο καὶ εἶπαν*(그들은 기도하여 말하였다)과 동일한 의미이며, 이를 *προσεύξαντο εἰπόντες*로 고쳐 쓴다고 해도 의미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기계적으로 현재분사는 “~하면서”로 과거분사는 “~한 후에”로 번역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뒤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사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은 다분히 형식(형태)에 따른 기계적인 분류이며, 분사의 풍부한 용례를 보여 주지 못한다. 오히려 헬라이어 분사는 용례와 관련하여 “보충적인 용법의 분

2)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174(§339). 이와 유사하게 월레스(Daniel B. Wallace)나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분사를 형용사적 성격(adjectival aspect)과 동사적 성격(verb aspect)에 따라 대별하기도 한다.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Michigan: Grand Rapids, 1996), 612;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23), 1104, 1110 이하.

사”(supplementary participle, 주동사의 의미를 서술적으로 완결시켜 주는 분사,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 42절의 οὐκ ἐπαύοντο διδάσκοντες[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등], “한정적인 용법의 분사”(attributive participle, 관형사[명사 수식어]나 명사로 쓰이는 분사), 그리고 “부사적인 용법의 분사”(adverbial[circumstantial] participle, 부사처럼 사용되거나 절대적으로 쓰이는 분사)로 대별될 수 있다.³⁾ 신약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용례 중에서 “보충적인 용법의 분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한정적인 용법의 분사”나 “부사적인 용법의 분사”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지면 관계상 보충적인 용법의 분사와 한정적인 용법의 분사만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겠다.

2. 보충적인 분사(The supplementary participle)

보충적인 분사는 주동사의 의미를 서술적으로 완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분사를 말하며, 주로 보어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와 함께 사용된다. 이를 함께 사용되는 동사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⁴⁾

가. ‘~이다’ (to be) 혹은 ‘~을 하다’ (to do)라는 뜻의 동사들과 함께 쓰이는 보충적인 분사

‘~이다’ (to be) 혹은 ‘~을 하다’ (to do)의 뜻을 가지고 있거나, 이에 기

- 3) 분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분사가 주동사(main verb)에 의존해 있는 어떤 것이나 주동사에 부가되어 있는 일종의 장식물(pendant)과 같은 것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212, § 411; C. F. D. Moule, *An Idiomatic Book of New Testament Gree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99.
- 4) 아래의 내용은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213~15(§ 414~16)의 내용을 주로 참고한 것이다.

초한 변형된 의미를 가진 동사와 함께 쓰이는 보충적인 분사(The supplementary participle with verbs denoting a modified sense of to be or to do)는 고전 헬라어에 비해 신약성경에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거의 전적으로 누가와 바울에게 국한되어 사용된다.⁵⁾ 만약 이러한 동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보어(complement)가 형용사나 전치사구일 경우 ὤν이 삽입되어야 하지만 신약에서는 통상 ὤν이 사용되지 않고 누락된다.

“to be”의 변형된 뜻을 가진 동사들로는 *ὑπάρχειν*(to be already in existence, to exist originally, 후대로 오면서 *εἶναι*의 뜻으로 약화됨), *προϋπάρχειν*(to be already in existence before), *διατελεῖν*(to be continuously) 등이 있으며, 각각 사도행전 8장 16절의 *μόνον δὲ βεβαπτισμένοι ὑπήρχον εἰς τὸ ὄνομα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의 *προϋπήρχον γὰρ ἐν ἔχθρᾳ ὄντες πρὸς αὐτούς*(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는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의 *τεσσαρεσκαίδεκάτην σήμερον ἡμέραν προσδοκῶντες ἄσιτοι διατελεῖτε μηθὲν προσλαβόμενοι*(오늘, 14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음식 없이 지내고 있다) 등에서 동사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분사와 함께 사용되는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to begin, to stop”의 뜻을 가진 동사들로는 *ἄρχεσθαι*(to begin), *παύεσθαι*(to stop, to cease), *τελεῖν*(to bring to an end, to finish, to complete), *ἐγκακεῖν*(to become weary, to become tired)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ἄρχεσθαι*는 고전 헬라어와는 달리 보충적인 분사와 함께 사용되지 않고 항상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다(예를 들어, 누가복음 14장 30절의 *οὗτος ὁ ἄνθρωπος ἤρξατο οἰκοδομεῖν*[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하였다] 등). 그 외의 동사들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5장 42절의 *πάσαν τε ἡμέραν*

5)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213, § 414.

έν τῷ ἱερῷ καί κατ' οἶκον οὐκ ἐπαύοντο διδάσκοντες καί εὐαγγελιζόμενοι τὸν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그리고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항상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가르치며,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마태복음 11장 1절의 ὅτε ἐτέλεσεν ὁ Ἰησοῦς διατάσσειν τοῖς δώδεκα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예수께서 그의 열 두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셨을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τὸ δὲ καλὸν ποιῶντες μὴ ἐγκακῶμεν(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등에서 이들 동사가 보충적인 분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to do”의 변형된 의미를 가진 동사로는 *καλῶς ποιεῖν*(to do well)이 있는데, 고전 헬라어에서와 같이 사도행전 10장 33절의 *σύ τε καλῶς ἐποίησας παραγεγόμενος*(당신이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의 *πλὴν καλῶς ἐποιήσατε συγκοινωνήσαντές μου τῇ θλίψει*(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니 참 잘하였다), 요한3서 6절의 *οὐς καλῶς ποιήσεις προπέμψας ἀξίως τοῦ θεοῦ*(네가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전송한다면 잘 하는 것이다) 등에서도 보충적인 의미의 과거분사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마가복음 11장 5절의 *τί ποιεῖτε λύοντες τὸν πῶλον;*(나귀를 풀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도 주동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된 분사라고 볼 수 있다.

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과 함께 쓰이는 보충적인 분사(The supplementary participle with verbs of emotion)

χαίρειν(to rejoice, to be glad), *ὀργίζεσθαι*(to be angry), *αἰσχύνεσθαι*(to be ashamed), *ἀγαλλιᾶω*(to be overjoyed, to exult) 등과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보충적인 분사는 신약성경에서 거의 사라졌다. 다만 사도행전 16장 34절의 *ἠγαλλιᾶσατο πανοικεῖ πιστευκῶς τῷ θεῷ*(그는 모든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믿어서 매우 기뻐하

였다)가 거의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 인지나 인식을 뜻하는 동사들과 함께 쓰이는 보충적인 분사(The supplementary participle with verbs of perception and cognition)

인지나 인식을 뜻하는 동사들과 함께 쓰이는 보충적인 분사들은 신약 성경에 매우 잘 보존되어 있다. 고전 헬라어에서는 분사가 동사의 주어와 연결될 경우 주격을, 목적어와 연결될 경우에는 대격이나 속격을 취했는데, 신약성경에서는 수동태 동사를 제외하고는 주어를 지칭하는 주격 분사는 사용되지 않는다.⁶⁾ 오히려 마가복음 5장 29절의 *ἔγνω τῷ σώματι ὅτι ἴαται ἀπὸ τῆς μάστιγος*(그녀는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몸으로 알아차렸다)나 요한1서 3장 14절의 *ἡμεῖς οἴδαμεν ὅτι μεταβεβήκαμεν ἐκ τοῦ θανάτου εἰς τὴν ζωὴν*(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다) 등에는 주격 분사가 *ὅτι* 절로 대체되어 있다.

“to see”를 뜻하는 동사들(*βλέπειν*[to see], *θεωρεῖν*[to look, to observe], *ὁρᾶν*[to see], *ιδεῖν*[to see, *ὁρᾶν*의 단순과거 부정사], *θεάσασθαι* [*θεάομαι*(to look at, to behold)의 단순과거 중간태 부정사], *ἑωρακέναι* [*ὁρᾶν*의 완료 부정사], *κατανοεῖν*[to observe well, to understand])이 쓰인 예로는 마태복음 24장 30절의 *ὄψονται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ἐρχόμενον*(그들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런 유형의 동사들과 함께 쓰이는 분사는 목적어와 동사가 그 자체적으로 완결된 의미를 나타낼 경우, 보다 독립적으로 별도의 절을 구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 11절의 *εἶδεν ἐκεῖ ἄνθρωπον οὐκ ἐνδεδυμένον ἐνδυμα γάμου*(그는 거기에서 한 남자가 결혼 예복

6)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215, § 416.

을 입지 않은 것을 보았다)는 *εἶδεν ἐκεῖ ἄνθρωπον ὃς οὐκ ἐνεδέδυτο ἔνδυμα γάμου*와 동일한 의미이다.

인식(cognition)을 뜻하는 동사들로는 *γινώσκειν*(to know), *εἰδέναι*(to see), *ἐπίστασθαι*(to know, to understand), *εὕρισκειν*(to find), *δοκιμάζειν*(to test) 등이 있으며, 누가복음 8장 46절의 *ἐγὼ γὰρ ἔγνων δύναμιν ἐξεληλυθῆσαν ἀπ' ἐμοῦ*(왜냐하면 나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οἶδα ἄνθρωπον ἐν Χριστῷ πρὸ ἐτῶν δεκατεσσάρων ... ἀρπαγέντα τὸν τοιοῦτον ἕως τρίτου οὐρανοῦ*(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14년 전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들려 올려졌다), 사도행전 24장 10절의 *ἐκ πολλῶν ἐτῶν ὄντα σε κριτὴν τῷ ἔθνει τούτῳ ἐπιστάμενος* *εὐθύμως τὰ περὶ ἐμαυτοῦ ἀπολογοῦμαι*(나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에게 관한 일들에 대해 변호한다), 마태복음 12장 44절의 *εὕρισκει σχολάζοντα σεσαρωμένον καὶ κεκοσμημένον*(그는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정리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고린도후서 8장 22절의 *ἔδοκιμάσαμεν ἐν πολλοῖς πολλάκις σπουδαῖον ὄντα*(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등의 예에서 인식을 뜻하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보충적인 분사들의 예들을 발견할 수 있다.

2. 한정적 용법의 분사(The attributive participle)⁷⁾

가. 관형사(명사를 수식하는 말)로 사용되는 분사(The participle as attributive)

7) 이는 형용사적 용법의 분사(The adjectival participle)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용법의 분사가 헬라어의 형용사와 거의 유사한 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관사와 함께 혹은 관사 없이 사용되는 관형적 용법의 분사는 관계사절에 상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관사 유무와 상관없이 관형적으로 사용되는 분사는 관계사절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 34절의 *τὴν ἡτοιμασμένην ὑμῖν βασιλείαν*(너희에게 준비된 왕국)은 *τὴν βασιλείαν ἣ ὑμῖν ἡτοίμασται*와 같은 의미이다.

(2) *ὁ λεγόμενος, ὁ καλούμενος* 다음에는 종종 고유 명사가 뒤따른다. 이 경우 항상 관사가 함께 쓰이며, 재차 지시되고 있는 본래 이름이나 단어 다음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16절의 *Ἰησοῦς ὁ λεγόμενος χριστός*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Jesus who is called Christ)라는 뜻이다.

(3) 분사가 지시하는 선행 명사가 관사 없이 쓰이는 경우에도 분사는 종종 관사를 취한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χρυσίου τοῦ ἀπολλυμένου*(단련된 금)가 이와 같은 경우이다.

(4) 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분사는 고전적인 용법에서는 오히려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수식 관계를 표현했을 것 같은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 12절의 *οὐδέ γὰρ ὄνομά ἐστιν ἕτερον ὑπὸ τὸν οὐρανὸν τὸ δεδομένον ἐν ἀνθρώποις*(사람들에게 주어진 다른 이름이 천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는 고전적인 용법에서는 관계대명사절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선회되기는 해도 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5) 관사가 붙은 분사(the arthrous participle)는 고전 헬라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인칭대명사와 함께 사용된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4장 12절의 *σὺ δὲ τίς εἶ ὁ κρίνων τὸν πλησίον*는 “그렇다면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인가?”(So who, then, are you to judge your neighbor?)라는 의미이다.

나. 명사로 사용되는 분사(The participle used as a substantive)

명사로 사용되는 분사는 형용사적으로 사용되는 분사가 그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와 그 용법이 동일하다.⁸⁾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사가 관형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관사가 반드시 붙는 것은 아니지만, 명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전 헬라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사가 사용된다. 관사와 함께 사용되는 예 들로는 마태복음 26장 46절의 *ἰδοὺ ἤγγικεν ὁ παραδιδούς με*(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에베소서 4장 28절의 *ὁ κλέπτων μηκέτι κλεπέτω*(도적질 하는 자는 더 이상 도적질 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8절의 *ἐγὼ εἰμι ὁ μαρτυρῶν περὶ ἑμαυτοῦ καὶ μαρτυρεῖς περὶ ἐμοῦ ὁ πέμψας με πατήρ*(바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τὸ πνεῦμά ἐστιν τὸ ζῶποιοῦν*(성령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등이 있으며, 관사 없이 명사로 사용되는 예로는 마가복음 1장 3절의 *φωνὴ βοῶντος ἐν τῇ ἐρήμῳ*(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등이 있다.

(2) 해당 분사가 총칭적인 의미(generic meaning)를 가질 경우 *πᾶς*가 삽입될 수 있으며, *πᾶς*가 ‘everyone’을 의미할 경우 관사가 생략되어야 할 예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통상 관사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

8) Daniel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619.

장 19절의 *γνωστὸν ἐγένετο πᾶσι τοῖς κατοικοῦσιν Ἱερουσαλήμ*은 “그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졌다”라는 뜻이다.

(3) 고전헬리어의 용법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성 단수 및 복수 분사들이 관사와 함께 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용법은 남성 분사가 개별적인 사물을 지칭하거나 일반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20절의 *τὸ γὰρ ἐν αὐτῇ γεννηθὲν ἐκ πνεύματος ἑστίν ἁγίου*는 “그녀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뜻이다.⁹⁾

:: 장성민 경북대학교(B.A.)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박사과정 신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9) 여기에서 *ἐκ*는 기원을 나타낸다. 로마서 11장 36절 및 F. Blass, A. Debrunner and Robert W. Funk,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 223을 참고하라.